Q7 야간 산불진화가 어려운 이유와 진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.

A 산불대응에서 진화헬기가 차지하는 진화비율은 약 74%(최근 5년 평균)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. 하지만 야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진화헬기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. 산불현장에 투입된 진화헬기는 해가 지면 철수 해야하고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. 이 때문에 야간진화는 특수진화대를 활용하여 방화선을 구축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.

진화헬기를 이용한 야간 진화를 위해 2018년 계기비행이 가능한 수리온(KHU-1FS·담수용량 2천L) 헬기 도입하여 그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, 현재 총 3대중 2대는 수도권 야간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서울 산림항공본부에 배치하였습니다. 2021년 '드론 산불진화대' 창설과 더불어, 드론을 야간 산불상황 관리 및 진화에 활용하면서 진화탄을 실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진화에 투입해 산림재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

Q8 잔불을 철저히 찾아서 꺼야하는 이유와 진화 방법을 알려 주세요

A 잔불은 진화 후 3~4일까지 낙엽 밑에 살아 있다가 바람이 불어 산소가 공급되면 재발화 할 수 있습니다. 지표면에 쌓인 낙엽층 아래에는 낙엽이 부식되어 거름처럼 된 유기물 층이 있는데, 진화헬기로 물을 뿌려도 이곳까지 스며들지 않아 불씨가 땅속에 숨어 계속 타게 됩니다. 땅 속에 숨은 불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도가 400°C 이상 올라갑니다. 숲이 우거질수록 부식된 낙엽도 많아 불씨는 더 오래 잠복할 수 있으며 3일에서 최대 1주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불이 꺼졌다 하더라도 최소 2~3일 동안은 반드시 감시인력이 남아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.